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98 청지기훈련, 한 주 앞으로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특별한 기회 개강은 2월2일 저녁7시, 모든 일꾼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말씀을 청직하게 전하고 듣는 교회,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재원을 들여 준비해온 98년도 청지기훈련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2월 2일 저녁 7시부터 5일 저녁까지 연속강의로 진행 될 이 기간은 총신교회의 성구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기회가 된다.

우선 미국 개혁주의 교단의 대표적 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의 교수가 한꺼번에 세 명의 한국을 방문하여 강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도 학습을 하지 않기로 한 것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 일단 총현의 청지기과 성도들로 제한시킨 것도 두드러야 할 부분이다.

교회는 이번 행사가 광범한 홍보에 따라 여러 교회와 기관들이 한꺼번에 연무되는 산만한 대중집회가 되지 않고,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비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들어오는 '말씀 대가성'의 기회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오는 교수들도 총신교회에서의 강의만을 위해서 오게 되며, 강의를 끝난 즉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교회는 총현의 모든 청지기(제직 전원, 각 부서 봉사자, 위원회 및 교구원

훈,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 대학부 임원, 차량관리부원)이 이번 훈련에 필수적으로 참석할 뿐 아니라 본교회 평신도 중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참석하도록 하여, 이번 청지기훈련이 실제적으로 전교회적인 말씀운동집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사 프로필은 아래와 같다.



• **김성관 목사**
(T. Longman)
본교회 위임목사,
연세대(B. A.), 총신
대신대원(M. Div.),
트리니티복음주의
신학원(M. A.), 웨스
트민스터신학원(D.

Min.)

설교: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변하며



• **트램프 폰네**
(T. Longman) /
웨스트민스터신학
원 구약학교수, 우
하이오 웨슬리안대
학(B. A.), 웨스트민
스터신학원(M. Div.),
에일대(M. Phil.), 웨스트민

스터신학원(Ph. D.)

강의: 시편 강해



• **조지 C. 풀러**
(G. Fuller) /
웨스트민스터신학
원 실천신학교수,
하버드대학(B. S.),
프린스턴신학원(M.
Div.), 웨스트민스터신

학원(Th. M. / Th. D.), 맵슨대

학(M. B. A.)

강의: 헤브러서 강해

설교: 유미의 고난으로부터 배울 점



• **피트 엔스**
(P. Enns) /
웨스트민스터신학
원 구약학교수, 메
시아대학(B. A.), 웨
스트민스터신학원
(M. Div.), 하버드대학

(M. A. / Ph. D.)

강의: 이사야 강해

고등부, 청년1·2부 겨울수련회 마쳐 '예수님'께 초집 맞춘 수련회

고등부와 청년1, 2부는 각각 지난 22-24일, 16-17일, 그리고 19-20일에 교회와 기도원 등에서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금번에 가진 이 세 부서의 수련회는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지만, 주제는 공히 '예수님'께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고등부의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총현 고등부'였고, 청년1부와 2부는 각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심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청년'을 주제로 삼았다. 고등부와 청년2부도 여러 가지 자제

적인, 또 교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에서 진행한 것과는 달리, 청년1부는 기도원을 이용하면서, 기도원 주변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정돈하고 모으는 작업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진행하기도 하였다.

청년2부는 주일 출석회원의 대부분이 참석하여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교사와 임직원, 회원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1998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도위원회 영성훈련 1월 25일, 2월1, 8일까지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영성훈련이 지난 1월 18일 시작되어 2월 8일까지 4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금년에는 교구 단위의 전도운동을 실시함에 앞서 '전도회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실시되는 이 영성훈련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 전도운동에 열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지난 주일 박경한 목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전도회 임직원들로 갈릴리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된 영성훈련은 오늘날 이홍성 목사의 '기도운동', 2월 1일에는 김희수 목사의 '교회사랑운동', 2월 8일에는 김필수 목사의 '전도운동'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이번 영성훈련의 훈련대상은 교구별 남녀전도회 임직원(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각 부서 부장) 및 직능전도회 임직원과 수장을 원하는 평신도 등이다. 훈련시간은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이며, 장소는 갈릴리움이다.



98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2월 15일 실시, 신청은 오늘까지

2월 1일, 8일(주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2월15일 오후3시, 갈릴리움에서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일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원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영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김희수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강소	문답	교구별 강소		
2월 1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적 찬양예배, 분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 김창인 목사의 이사에서 강해 ●

천국 백성이 땅 위에서 서로 권면할 일

(이사야 12:4-6)

천국 백성인 성도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서로 권면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1.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 자기를 위한 생활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모쳐서 간단히 말하면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모아서 잘 먹을까, 다시 말하면 생활문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겠는가를 생각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재미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셋째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오래 살까를 생각합니다.

(2) 자기를 위한 세상 사람들의 생활 형태는 어떠한가

① 첫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첫째로, 첫사람이 배우는 사람의 교훈을 의심합니다. 둘째로, 첫사람을 원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원망이 더 많습니니다. 셋째로, 첫사람에게 이유 없는 반항을 잘합니다.

②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첫째로, 나보다 돈이 없고 인물이 못나고 나보다 기술이 모자라고 지식이 없고 나보다 권세가 못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멸시합니다. 마음으로 멸시하고 입으로 비방하고 생활로는 착취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서 조금 남은 것까지 빼앗고 동거죽을 벗겨 먹으니기가 막입니다. 둘째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시기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면 다음에는 도망을 합니다. 있는 말만 있는 말을 꾸며서 함정을 때뜨립니다. 셋째로, 자신이 실패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면 몸이 병이 들면 타는 대로 저주합니다.

③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하어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설단(廢壇)합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④ 성도를 대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정계를 지키는 성도들을 공언히 조롱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을 까닭없이 핍박합니다.

2. 천국 백성이 땅 위에서 서로 권면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모든 문제를 자기 중

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분에게 맡겨 버리고 우리는 각자의 책임에만 충성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중천교회의 성도들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나라의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되도록 하심 것을 믿고 그분에게 다 맡겨 놓고 자각자 할 일에만 충성하자고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1) 천국 백성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떤 권면을 해야 합니까

① 첫사람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자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첫째로, 첫사람의 사랑에 감사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공에 감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수고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첫사람의 정성이런 부탁에 순종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부탁과 교훈을 주시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자고 피차에 권면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행동입니다.

②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업신여기지 말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힘이 있는 대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었으니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③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 주는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머리를 숙여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④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에는 어떤 권면을 해야 합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병이 나서 쓰러졌을 때에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남에게 배를 끼친 것을 미안해 할지언정 저주하는 생활은 일체 하지 말자고 자신에게 권면하여야 합니다.

⑤ 성도에 대하여는 어떤 권면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랑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바로 한대!'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2)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 권면해야 합니까

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자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각자의 책임에만 충성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4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생활을 하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세 가지 크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만물을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물, 우리가 먹는 쌀, 과실이 모두 하나님께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주신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복을 계속하여 내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시고 세상을 떠난 천국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복을 계속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②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감사생활에는 순종이 뒤따릅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생활로 순종하는 것이 감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죄악을 끊어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부른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도를 공경하는 일이 자식의 신입니다. 아윗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첫사람의 신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자들의 신입니다.

③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순종이 나오므로 순종하는 생활은 기도로 계속됩니다.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을 그만 두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을 계속합니다. 인간은 약하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3) 천국 백성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자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4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의 이름을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에게까지 전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전해야 합니다.

첫째로, 일반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반계시란 많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아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공기를 주시는 일은 일반은총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비를 내리서 곡식을 자라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내가 아무리 능해도 하나님이 주는 공기를 막지 못하고 세습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 라고 하면 신이 일반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특수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에 승자가 된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자. 예수님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재림하시는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라고 하면서 특별한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끝

● 김성관 목사의 다짐주일 설교 ●



새 언약 (예레미야 31:31-34)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의 길로 행하는 다윗 왕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당한 지 이미 100년이 흐른 시기였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유다를 정벌하려고 하는 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리와 계시를 받고서 유다가 맞게 될 장래의 일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유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임하신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계획하시고 주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세의 십계명으로 잘 알려진 옛 언약의 율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짐승의 피흘림과 번제를 통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그것도 일시적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는 끊임없이 등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따라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릇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경고한 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완악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간파하시며 길이 참으셨던 것입니다(롬 3:2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및 유다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한 그 끝없는 사랑의 가장 위대한 시위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여년 전에 이미 그분의 오시는 목적이 뚜렷하게 증거된 사실은 실로 놀랍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

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갈 3:23-25).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에서 행하던 번거로운 제사의식이나 희생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

라함과 유다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제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중, “그날 후에”(33절)는 새 언약의 끝과 새 언약의 영원한 시작을 말합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던 옛 언약의 시대와는 달리,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토록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

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고 무지한 자라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니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34절). 옛 언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죄사함을 이제 새 언약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신 바로 이 ‘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취 주신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만물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되고”(33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영광된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히 10:23).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셨던 옛 언약과는 달리,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영광된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히 10:23).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19-22).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단지 주님을 찾지만 하던 때는 없습니다.

두번제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합니다(32절). 새 언약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받은 옛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소나귀로 친히 쓰신 두 돌판 중 중간판을 주시고, 여기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로써 백성들을 규훈하게 하셨습니다(출 31:18; 신 4:14).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32절)고 하신 것처럼 이스

아 타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후 3:3).

‘새 언약’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자리합니다. 돌판에 새겨주셨던 옛 언약과는 달리,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설득력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 40:8).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는 공평의 말씀입니다. 모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제10회 중·고·대·청 선교수련회

2. 25(수)-27(금) 많은 지원자 기대

질문 : 하나님은 2천년대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대답 :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젊은이들!!

선교위원회에서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충현기독교회를 실시한다. 이 수련회는 말 그대로 한국 교회의 차세대 선교를 주도하게 될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의 선교인신자, 관심자 등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배우게 하는' 수련회이다. 헌신자뿐 아니라 관심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 선교수련회는 지난 1993년 여름에 시작된 이래, 꾸준히 진행,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교동행가'의 역할을 잘 담당해 왔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교가 제도 확립을 의식한 구조전속의 선교(하드웨어 구축의 선교)에 치중해온 것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이제는 사람을 키우고 보내어 이들이 하 여금 생명을 건지는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생명 선교'에 선교의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선교를 향한 순전한 열정이 그들의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교수련회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빌 2:5)이고, 두 차례의 특강과 세 차례의 주제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저녁에는 부흥회로 모인다. 백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수련회에 많은 헌신자, 관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지난해 여름에 실시했던 선교수련회 모습.



◎ 춘천소년원 수련회를 다녀와서 ◎

두마리 토끼 모두 잡은 수련회

백 정 미
(대학부)

대학부 주보에서 광고를 보았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부딪쳐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다가간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죄인들, 창기들이었다. 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다.

가기 전 '사단, 사단...'에 대해 계속 듣고 그것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서인지 '하네, 못하네'의 갈등 또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제가 잠시 잊어먹고 있었네요.'로 고백되어지며 떨리기도 하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4박 5일의 소년원 사역을 통해 두 가지 일을 이루셨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또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 않게 해 주셨다.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영혼들을 만났다. 내가 이해한다고 하기에는 내 자신이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깊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인지 몰랐다.

떠나는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정말 마음 속이 열어나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했는지 웃으면



▲ 소년원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 수련회 기간 중 세례식도 거행했다.

서 나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감사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받을 것이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 선교의 황무지 수단을 가다 (3) ※

아끼는 옷감 잘라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

하 대 선
(강로, 행정위원장)

원주민들과 함께 드린 성탄절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리는 원주민 교역자 두 분과 함께 그날 마지막 방문지인 자바아울리아 교회를 향해 연막처럼 날리는 황산먼지 속을 2시간 가까이 달렸습다. 그런데 타고가던 2대의 중과차가 교대로 교장이 나가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하니, 그곳 피난민촌교회 앞에는 이미 200명 가까운 원주민들이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에 갈때지붕을 이은 20명 가량의 건물이 자바아울리아교회 겸 성경학교의 전부였습니다. 전기도 없는 교회 안에 들어서니 강단 앞에 매단 새겨줄에 형질 조각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다. 그것을 본 일행은 무속신앙이 아닌가 하고 놀라서 묻는 우리에게 모세전도사님이 '이곳 피난민촌의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서 아끼는 옷감을 잘라서 정성껏 만든 장식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는 우리의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았습다.

그곳에서 그동안 김영대 선교사님의 계서 양육한 신학연장 1년과정(TEE)의 수료 예배를 드렸습다. 그 교회 담임인 루트 목사님이 21명의 남니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갖고간 선물을 드렸더니 우리에게도 나무로 조각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였습다.

다음날인 26일의 일정은 나일신학교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다. 이 학교는 4년제대로 재학생 83명, 교수 6명, 교실 37개에 도서관(강서 5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에 간 주리예프성

경 학교는 재학생 64명, 교사 12명에 교실 2개와 초라한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김 선교사님이 현지 지도와 양성을 위하여 강 의도 하고 약간의 물질 지원도 하시면서, 그곳 교사와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계셨습다.

이날의 마지막 방문지는 피난민촌교회의 하나니 마요교회와 피난민 전로소였습다. 비포장도로의 황산먼지 속을 고강이 잦은 차로 한시간쯤 달리 도착한 피난민촌은 표현이 어려울 만큼 가난하고 가엾어 보였습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마카야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신앙은 역경 속에서 주님이 베풀고 담대함을 실감케 했으며 하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참뜻



▲ 나일신학교의 도서관. 이 학교는 주리예프성경학교와 함께 김영대 선교사가 원주민 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역하는 곳이다.

을 깨달을 수 있었습다.

지연 관계로 우리 답사 행적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수단 현지 답사를 통해서 김영대 선교사님이 지난 2년 동안 땅과 눈물로 닦아 놓으신 선교 기반을 토대로 현지 지도자를 계속 육성하여, 원주민신교에 주력한다면 수단은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꽃피고 열매 맺을 날이 기쁘고 올 것임을 확신하면서 귀국길에 올랐습다. (끝)

젊은이 페이지

이 난은 젊은이 페이지로 대학부와 청년1부가 1주씩 맡아서 편집합니다.
대학부, 청년1부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젊은이들의 순수하고 생동감 넘치는 글과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 선교 지원자 인터뷰

(취재 / 4학년 최정은)

지난 19일(월) 메추라기홀에서 대학부 지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 배출을 위해 새봄이(세계선교를 꿈꾸는 젊은이) 스냅 최미영 자매와 안선영 자매가 약 50명의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첫번째 면접시간을 가졌다.

선교 형태는 단기, 장기, 유학생 선교사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 방학 중 2주 내지 4주 동안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사를 지원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를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방글라데시, 인

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등을 지원한 이는 각각 1명이었다. 지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스리랑카와 몽골을 지원한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날 모인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지원한 나라에 대해 보다 잘 알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선교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싶다는 그동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였다고 했다. 그리고 면접을 담당한 새봄이 스냅 최미영 자매는 지원 동기, 개인신앙점검 등을 통해 지원자들

의 아낌없는 헌신의 마음을 읽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한다.

이전 선교사역에서는 드라마, 성경 이야기, 율동과 찬양 등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자매들에게 그다지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이제는 보다 힘든 상황 하에서 집짓기와 같은 일종의 노동을 요하는 사역들이 많아져 남학생 인원을 여학생 인원의 1.5배가 되도록 팀을 구성한다.

선교 대상자들은 2월 25일부터 27일 까지 선교위원회 주관인 '중·고·대·청 선교수련회'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그밖의 기도후원자나 관심자들도 3월부터 매주일 찬양예배 후 실시되는 선교 훈련에 동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부에서는 '선교한국' (8/3·8/8)에 참여하는 자체 선교훈련 보장을 계획하고 있다.

시

십자가, 나를 살리신 예수

고통의 늪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
기쁨의 정수리가 환히 빛날 때
그 어느 때에도 내 여호와
나와 함께 했다.

보라, 여기 살아 숨쉬는 진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내 생의 모든 밤낮을 주관하시는 이 내 여호와, 늘 내 길을 이끄시니

우리가 살아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깃발을 들라, 하나님의 백성여,

나 참 자유를 얻고, 참 인식을 얻었으니
여기, 강건하게 서리라.

감사함으로 서리라.

오랜시간,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감쌌다.
보이지 않는 밀막자를 한없이 기다리었다.

알지 못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감싸던 따뜻한 두 팔

나를 위해 찢긴 살에선 아직도
피가 흘렀다. 내 죄로 인한 피가 흘렀다.

내 죄악의 장님되어 보지 못했다
깊고 아픈 시간 동안 예수의 음성
듣지 못했다.

귀를 기울이니.

차가운 우물 속, 내 마음 밀막다.

아, 솟아나는 예수의 음성.

태초부터 동일했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 음성이 들린다.

열린다, 보아라.

마음의 빗장을 열고, 두 팔을 벌려

내 주 예수를 맞으라.

주 예수, 사랑으로 날 감싸고

죄악의 옷을 벗기며

나를 일으키리라.

보라, 저 십자가 무엇인가.

황무지 모래바람 그득한

내 가슴에 피어난 십자가

보라, 모래에서 꽃이 핀다.

무너진 폐허가 몸을 일으킨다.

십자가, 나를 살리신 예수.

십자가, 그것은 참 자유, 사랑이니

외치라, 영혼아. 회복의 역사.

살아계신 예수, 내가 알지 못하는 곳

신실하신 예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

지유하시리니.

눈을 떠라, 영혼아.

놀라운 회복이 지금, 일어나리라.

피어나는 겨울,

송 경 주
(대학부)

※ 대학부 소그룹 하사리 총회 소식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을(里)

입대한 형제들에게 우편물 발송하는 일 통해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모임

(취재 / 2학년 위서현)

대학부 내 소그룹 하사리가 지난 1월 13일 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기와 회계, 문서 발송팀, 주소관리자 등의 역할을 새로이 분담하고, 올해 갖게 될 군부대 사역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하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을(里)'이란 뜻이다. 대학부 회원들을 대표해서 우편물을 보내 군에 입대한 지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즉, 교외 소식 전달을 통해 신앙을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교외와 대학부에 대한 소속감을 늘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각 부대에서 군 전도에 힘쓰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하사리는 매월 군지체들에게 대학부 주보와 주간총회 각 한 달분과 기도 편지, 위문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등을 보내고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 군교회와 군 장병을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있는데, 하사리 우편물을 통해서 담당되어진 지체들의 편지를 나누고 답장에 쓰여진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 우편발송 작업을 한다.

1월 19일에 가진 기도회에서는 방학 중 군부대 사역에서 찬양집회를 맡을 대학부 내 찬양 소그룹 '시심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군교회와 군종들, 그리고 이번 주에 입대하는 3학년 노성현 형제의 군생

활을 놓고 기도하였다. 더불어 총회를 통해서 98년에 새롭게 맡은 각각의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사역자들인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98년 2월에는 구분제 중위가 있는 장원도 양구군 소재 부대에서의 찬양 및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전교회와 기도회로 인제군에 위치한 기도교교회에서의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사리 사역은 대학부를 떠나 있지만 그 공감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군대에 간다는 것이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대에 파송되는 것임을 상징시켜 줄 선교사역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그 곳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 고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한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있는 사역이다.

대학부 겨울수련회 열려

2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취재 / 4학년 최정은)

'우리가 이 일에 중언이랴'이란 주제 아래, 충현기도원에서 2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3학 4학년 대학부 수련회가 있다. 주제성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며, 주제찬송은 찬송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이다.

수련회 일정 가운데 선택식 특강이 다시 등장한 것은 관심사가 다양한 대학부 지체들의 입맞대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 공동체 시간을 통하여 결속력을 다지고, 이전에 없었던 의무소 모임을 통해 기도로서 98년 캠퍼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준비의 기회를 가진다.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저녁부흥의 시간 또한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실 그 놀라운 비밀에 기대가 된다. 취침 전 털모임은 하루를 정리, 다짐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 기도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대학부 수련회 강사는 김동후(대학부)·김필수(청년1부) 목사, 이종관·조재민·최진우 대학부 전도사이다.

▼ 지난해 여름수련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



◆ 이단 시리츠 1 ◆

이단의 정의

정 현 민

(목사, 16교구·범조인전도회·도서장학회 지도)

- 차례 -

- | | | |
|-------------|--------------|---------------|
| 1. 이단의 정의 | 3. 근·현대의 이단 | (3) 천주교 |
| 2. 초대교회의 이단 | (1) 예비교의 증인 | (4) 구원교 |
| (1) 예비교의 | (2) 불문교 | (5) 영성교 |
| (2) 영지주의 | (3) 안식교 | (6) 예언교 |
| (3) 가원설 | (4) 크리스찬사이언스 | (7) 동방교 |
| (4) 아리우스주의 | | (8) 세일교단 |
| (5) 사벨리안주의 | 4. 한국의 이단 | (9) 광각전선 |
| | (1) 통일교 | |
| | (2) 김기동 | 5. 이단을 예방하는 길 |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단'이라는 용어만큼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가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파수대'나 '깨어라'를 가지고 방문했을 경우 "여기서 오셨습니까?" 또는 "여호와와 증인입니다."라고 묻게 될 때, "여호와와 증인입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성도들은 쉽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때에 그들은 심증판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우리는 옳바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가 믿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누가 옳은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사정이 이러 되면, 담변에 공격해온 기성 교회 교인들은 흔히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파수대'를 가지고 오는 여호와와 증인들은 이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대화할 수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당신들이 이단이니가 빨리 가시오."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답변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분쟁 문제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이단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단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단을 정의하는 말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단은 교회사적으로 '하이라이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를 교부들 가운데 최초로 사용한 인물은 악나타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단일성을 해치는 무리를 지칭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셀라 등을 지칭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단'이라는 단어는 '특이하면'서도 동일한 견해를 가진 동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

◎ 탐방 - 범조인전도회 ◎

법률 상담 통한 지역 사회 전도

매주일 2, 3부예배 후 교육관 108호에서 상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법 없는 세상을 꿈꾼다. 법에 우선하여 도덕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법 없이도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법하지 않은 법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때로는 법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법 때문에 오히려 주눅들 때가 있다. 이렇게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때, 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을 느낀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법을 찾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범조인전도회의 모임이 있다. 그 모임은 범조인전도회이다. 90년도에 결성된 이 모임은 원천 권사, 검사, 변호사, 여러분의 자선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임을 이끄시는 분은 이찬우 검사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을 해 주고 그 과정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역 사회 주민들도 전도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전도하려는 뜻이다. 실제로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지역 사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상담과정이 전도가 결실을 맺기도 해 도입의 이점 그대로 범조인전도회로 확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전도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주일 2부와 3부예배 후 교육관 108호로 찾아 오면 된다. 또 교역자나 사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상담원들이 상담에 응하여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준다.

상담 내용은 주로 형사, 민사, 행정 등의 각종 소송 사건이다. 매주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평균 10여명 정도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상담 내용이 끝날 때까지 상담을 하며 시간 제한은 없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이반기회에 고집시다(1)

'음식 문화'

음식은 필수, 말씀은 선택?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위기가 있음을 덮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만족으로 자취하면서 방심하던 중, 이제 뒤늦게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험기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고쳐야 하고 또 고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과대포장된 음식문화부터 고쳐야겠다.

음식이 있어야만 몸이 이루어지는 폐단을 정돈해 가야 하겠다. 월요일이 침마다 소래기장에 쌓이는 음식찌꺼기 우리들 영성의 단면을 보여 준다던지 나쁜 말들이? 각 부서와 각종 모임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음식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겠다.

실업인전도회

위기의 때를 기도로 이겨내는 새벽기도회

일시 : 매주 목요일 새벽기도회 후(5:40-6:00)

장소 : 실업인전도회 사무실(교육관 112호)

강사 : 이홍성 목사

1930년 세계적 경제 공황 속에 미국 시카고에서 6인의 크리스천 기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이 조찬기도회를 갖고 기도와 간구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우리나라는 1952년 6·25전쟁 중 부산에서 기독교실업회를 조직), 여기서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건전한 기독교 정신 및 윤리관의 확립으로만 가능하다는 영적 인식을 가정으로서 기독교실업회가 대두하게 되었다.

기독교실업회가 경제 공황기에 창립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처럼 총현 실업인전도회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중에서도 부흥 발전하고,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많은 회원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을 모시고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묘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참된 뜻을 찾기 위해 매주 목요일 기도회로 모이기로 한다. 회원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19절(교회의 분파, 분열을 조장하는 편파), 갈라디아서 5장 20절(경정한 죄를 지은 자들), 디도서 3장 10절(스스로 선택하여 신앙과 실생활의 다양한 형태를 취한 자들) 등을 근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무른 이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교회의 단일성을 파괴시키는 교의(dogma)를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적으로 공인된 신앙 교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 길을 따라 방향할 때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도회는 때로 예기치 않은 오해를 살 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의 처리까지 여기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조인전도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상담이 처리 기종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방법을 안내해 주면 실제 문제 해결은 자신들의 몫이다.

그러나 범조인전도회에서는 아주 딱한 경우까지 외면하지는 않는다. 도저히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료로 변론을 하기도 하고 그밖의 여러 가지 일처리를 대신 해 주기도 한다.

범조인전도회는 신앙 공동체이다.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법률 상담과 함께 범조인전도회 회원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범조인들은 인성이 꽃이듯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에 참가할 기회가 많고 있다. 범조인들은 인성이 꽃이듯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에 참가할 기회가 많고 있다. 범조인들은 인성이 꽃이듯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에 참가할 기회가 많고 있다.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 이 전도회는 대외적인 기독교인 모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범조인전도회의 대부분이 1950년에 결성된 최초의 기독교실업회인 애종회와 기독교실업회원들이다. 그리고 회원들은 사설 교도소인 '기독교 교도소 설립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므로 서로 모습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범조인전도회야 아무쪼록 성도들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큰 나무가 되기를 기원한다.

(글/정원희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영아부는 눈이 평평 오는 1월 20일에 98년 특별교사기초회로 모였다. 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배분리 나누어 먹고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올 한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 영아부 아기들을 주님 품으로 바르고 맑고 푸르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교사로서 꼭 지켜야 할 일을 전도사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새로 봉사하는 선생님의 소개로 특별교사 기초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송혜경 통신원)

▶ **중등1부 /** 지난 19일 중등1부는 교사 특별회의로 모였는데 75%의 참석율을 보이며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진목을 나누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 모임은 끝났지만 모두들 아쉬워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부흥의 신성한 바람이 중등1부에 꼭 불어 올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선아 통신원)

▶ **중등2부 /** 저희 중등2부 친구들이 지난 주일 공과공부를 통해서 은혜받은 내용 한 가지!
유다 왕국의 10대 왕이 오시야 왕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시야 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여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돌팔이 죽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무척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IMF로 떨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요?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중등2부 친구들도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저희 친구 요한이 가야요. 작년에도 몹시 아팠던 요한이요? 이사야는 이러한 상처를 치한 나라를 위해요. 38년된 중증병자도 낫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주님께 열광 돌릴 수 있도록 모두모두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나성애 통신원)

▶ **청년1부 /** 청년1부에서는 금년 여름에 실시하는

해의 단기전교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과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헌신할 청년 젊은이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 7월말-8월말

(3차에 나누어 10일 내외로 파송)

· 대상국 : 중국, 인도, 터키, 몽골, 파키스탄, 시리아, 수단, 수리남(이외에도 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1교구 /** 살롬! 1교구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성경 읽기를 실시하였다. 주님의 사랑은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연로하시어 눈의 피로가 자주 오는데도 은퇴전사이신 박옥식 권사(72세, 10득), 조옥순 권사(71세, 6득), 이상복 집사(4득, 이 집사님은 부인 집사님이 폐암을 앓고 계시지만 주님의 한없이신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시간을 바치셨음), 바쁜 사업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주님을 사모하는 이득해 권사(3득), 그밖에 많은 분들이 1-2득을 하여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역시 믿음의 어머니이신 권사님들이 다독하심이 기도로 빈하여 주님의 은사를 닦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게 비취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젊은 심령들도 도전을 받고, 98년엔 적어도 1득 할 것을 다짐하는 분위기가 흘렀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읽은 말씀을 통하여 실천된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리라. (임동복 통신원)

▶ **15교구 /** 경제 살리기에 한 부분으로 금 모으기가 한창이다. 순금을 좋아하는 민족, 한국인. 풀무불에 단련되어야만 나오는 것이 '정금'이다.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없어지고 ..., '오, 주님, 우리의 가식과 이중적인 삶을 믿음의 풀무불에 넣어 정금처럼 나오게 하소서.' 15교구 어느 권사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처럼 관악 동자구들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리라. (한숙정 통신원)

▶ **충원복지관 /** 생활지도교사(G·H)를 모집합니다. 초대출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전화 / 564-4885)로 문의해 주세요.

※ 청년1부 진급생수련회에 참가하고 ※



청년1부 — 곧 터질 것같은 활화산

장수진
(청년1부)

'부흥, 예수 청년' 이것이 98년도를 맞이하여 새롭게 장식된 청년1부 주보 슬로건이다. 대학생들 눈높이로 줄어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1부에 첫발을 내딛었다. 터키단기전교파와 작년 청년들은 행사를 통해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청년1부에 올라왔다. 특별히 12월 17일에 가졌던 수련회는 너무도 은혜스러웠고 기존의 청년회들과 가라지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비슷한 나이에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곳곳에 활기 있게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그 수련회에서 강하게 받았다. 기록 청년으로서 IMF시대를 맞이한 마음 가짐과 식이기는 한국 교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힘을 기도와 우리의 삶을 드러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같은 청년1부의 열가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사역원별로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청년1부 '계속해서 열기 개져라 곧'

터질 것 같은 활화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후보의 슬로건처럼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의 청년'이 되기를.

진짜 새내기 여기 있어요

이은경
(청년1부)

12월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청년회원으로 있는 청년1부 진급생수련회가 있었다. 찬양으로 시작된 이 수련회에서 그 어느곳에서보다 더 열정적인 모습과 함께 간간하게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따스하고 진실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직장 생활로 바빠지면서도 수련회를 위해 애쓰는 모습과 완벽한 모습이 아닌 조금은 엉성한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풋풋함을 느꼈다. 김필수 목사님의 청년1부에 대한 비전이 담긴 말씀은 막 청년1부에 올라온 우리 새내기에게는 사뭇 도전권을 주는 말씀이었었고, 나름대로 청년1부에 대한 각오를 알고 함께 동참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했다.

처음 모인 텅빈방에서 늘 신세로서 서 있었던 나는 밤을 새이면서 언니, 오빠들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도 도움이 되는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새내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 내가 느낀 것은 바로 이제는 알고만 있고 전해만 주었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청년1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 또한 청년1부를 위해 기도할때니까. 나는 98년도 청년1부의 지침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가슴에 간직해 제 1박2일의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왔다. 나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를 예감한 채.

2월 1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2부예배

지저스라이프 남성중창단

김기용, 최만호(테너 1), 오정성, 김성권(테너2), 김정호, 김용은(바리톤), 신명식, 홍성민(베이스), (피아노 / 김소영)

여성중창단

· 지도 / 김희숙
박정주, 정동숙, 이주은, 홍성미(소프라노), 하수연, 박소연(메조소프라노), 한지연, 김보영, 허혜진(알토)

(피아노 / 김효진)

〈찬양곡목〉

· 찬양을 주님을 - 여성
· 내가 주를 찬양하리 - 여성
· 하나님의 음성(시편 40편) - 남성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리(찬 512장) - 남성
· 나는 예수 바라리(찬 387장)

3부예배

오르간 김남옥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
독일 뮌헨공립음악대 Fortbildungsklasse 수료
독일슈투트가르트국립음악대학원
과정 졸업
아래판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사랑아, 너의 죄를 크게 애용하여라
· Praecludium · 주 음성 외에는(찬 500장)

4부예배

트럼펫 홍승현

(오르간 / 조희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프랑스 Montreuil 국립고등음악원, European고등음악원 졸업
동아문화실대악부원 1위 입상
부천필모케스트라 부수석

서원대, 경원대, 수원대, 가톨릭대 출강
임마누엘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기도 · 기록한 성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찬 542장)
· 저 장미꽃 위에 이슬(찬 499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40장)

5부예배

바이올린 이예스더

(피아노 / 김경아)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청년1부 찬양대
〈찬양곡목〉
·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 나 가진 재물 없으나
·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은(찬 241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40장)



교회소식

● 알림

1. 구제헌법 / 오늘 I,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2. '98 청지기 8월 안례 / 2월 29일(월) 1900부터 2월 5일(목) 저녁까지 연속 강의로 분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일꾼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3. 제1차 세계 최대 신학인대 / 학습 및 세계,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오늘까지 교구담당 과목자에게 신청하고, 아래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2월 1일(주일) 1500-1650, 2월 8일(주일) 1500-1550.
 - 교육장소: 교육관 314호(학습), 교육관 307호(세례), 교육관 309호(유아세례)
 - 문답: 2월 8일(주일) 1600-1650, 각교구별 장소
 - 학습, 세례: 2월 15일(주일) 찬양대에서, 분당
 - 유아세례: 2월 15일(주일) 1500, 갈릴리온
4. 남원전도부 임직원 및 적동전도부 임직원 영성훈련 / 오늘, 2월 1일(다움주일), 2월 8일(주일) 1500부터 1600까지 갈릴리온에서 있습니다.
5. 학원전도회 겨울수련회 /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30일(금) 0900부터 1700까지 교육관 109호에서 있습니다.
6. 수회교과교 / 2월 8일(주일) 1500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 과정(과제): 초급, 중급, 고급반 - 문: 예배대부(교육관 109호)
7. 회계실무 교육 / 2월 15일(주일) 1500부터 1600까지 교육관 307호에서 있습니다. (1월말 시산표 지참요) · 대상: 남나전도회 회계, 부회계, 교육위원회의 회계, 부회계, 기타 위원회의 통장주최 또는 통무, 회계
8. 회계감사 / 1월말 대우회 전도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각 지회는 회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 시청각실 운영 / 매주 유, 초, 소년부를 대상으로 1000부터 1600까지 교육관 209호에서 시청각 교육이 있습니다.
10. 주간총회 다음주 광고 오늘까지 접수 / 월날(17일(목)-29일(목)) 연후로 주간총회 다음주 광고 접수일을 마감합니다.

● 모임

1. 장로 회오세벽기도회 / 27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교구위원회의 월례회 / 오늘 1530, 신교관 301호
3. 실업인전도회 기도회 / 매주 1500, 실업인전도회실

4.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9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5.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212호
6.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26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남원전도회

1. 바 월13 / 오늘 1430, 교육관 310호
2. 베드로 13 / 2월 1일(다움주일) 0530-0630, 갈릴리온

● 별 세

1. 천제교 집사(홍삼화) 집사 모친, 윤대현 성도 장모, 제6교구 요원(대우구) / 15일 별세, 17일 장례
2. 김동진 성도(김윤환 집사 부친, 함윤자 집사 사부, 제17교구 용인구) / 16일 별세, 17일 장례
3. 양순남 성도(김재수 집사, 김광자 집사 모친, 윤진숙 집사 사모, 제6교구 송파구) / 18일 별세, 20일 장례
4. 김진갑 집사(제6교구 상수구) / 18일 별세, 20일 장례
5. 김기수 집사(김영숙 집사 모친, 최수영 집사 장모, 제5교구 목원구) / 19일 별세, 21일 장례
6. 임순진 집사(방정중 집사 모친, 송병록 집사 장모, 제4교구 방배구) / 20일 별세, 22일 장례
7. 이만수 권사(전수민 장모 부친, 제13교구 신원구) / 20일 별세, 22일 장례
8. 유영의 집사(유정명 집사 부친, 남영자 집사 사부, 제2교구 미성구) / 21일 별세, 23일 장례
9. 이배근 집사(김은순 권사 남편, 이석훈 집사, 이광훈 집사, 이상훈 성도 부친, 이상권 집사, 양옥주 집사 사부, 제16교구 평촌구) / 22일 별세, 23일 장례

※ 2월 주일 및 수요일에 기도담당

월	일	주일에배 (장로)					찬양대 (인수합)	수요일에 (권사)	
		I	II	III	IV	V		I	II
2	1	이정주	전용홍	이동철	이광재	김광남	조종환	최영득	최정순
	8	손 현	이하영	정정주	이승현	임부민	정현민	최희자	최현숙
	15	김순천	김정수	한승규	임기세	김진용	황희만	최희자	한동숙
	22	손동운	김발민	정종식	김기하	강순용	주영호	한영덕	한영숙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0	최나중	1	창년2부	강옥자(17)	188	이지연	10	대학부		206	김배미	19	창년1부	이진우(16)
171	이영화	1	창년2부	강옥자(17)	189	류기식	11	창년1부	이수자(11)	207	신지영	19	창년1부	문상덕(2)
172	전상관	1	창년2부	박익훈	190	이명숙	11	창년2부		208	표기민	19	사람부	
173	이승희	2	창년2부	191	신기하	12	신기하	12	최정명(8)	209	이동원	19	사람부	
174	전경열	2	창년1부	전재순(2)	192	정소운	12	루디아		210	최하람	1	창년2부	
175	정혜복	3	창년2부	김진신(8)	193	최인목	12	창년2부	김봉배(8)	211	송미애	1	창년1부	
176	유선영	3	창년2부	장금연(8)	194	이양희	12	창년2부	김봉배(8)	212	권신자	8	창년2부	
177	권성진	3	베드로	이진규(7)	195	김정대	12	바울	이자경(12)	213	김정숙	15	창년2부	
178	김명환	4	창년2부		196	김재우	15	루디아	이승숙(1)	214	박정진	19	창년1부	
179	최윤정	4	대학부		197	신명진	15	루디아	이승숙(1)	215	홍승재	19	창년1부	
180	데이비드(15)	5	창년2부		198	이연정	19	창년1부	이도연(19)	216	권민호	19	창년2부	장영준(15)
181	한도자	5	창년2부		199	박정민	19	창년1부	이도연(19)	217	박성희	19	창년1부	이준(19)
182	이호영	6	요한	이병학(14)	200	황지연	19	창년1부	김정민	218	한 희	19	창년2부	황원진
183	장미영	6	창년2부	이병학(14)	201	김정민	19	창년2부	황지연	219	유수영	19	창년1부	이희의(12)
184	신영희	7	창년2부	손경희(7)	202	안정희	19	대학부	이기훈	220	이기훈	2	요한	
185	강고은	8	베드로	김영숙(8)	203	양승민	19	대학부	박은희(4)	221	서재훈	19	창년1부	
186	임인애	9	마리아	송양림(11)	204	권종호	19	창년1부	이수자(11)	222	시정훈	19	창년1부	
187	김상근	10		이진규(7)	205	이영하	19	창년1부						

※ 천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기도제목

- ① 2월 2일부터 5일까지 있을 '98 청지기훈련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강의를하시는 분들과 강의를 듣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 ② 2월 8일까지 대우입니다. 실시되고 있는 전도위원회의 영성훈련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 ③ 계속되는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부흥케 하소서.
- ④ 오늘 예배전 찬양을 담당하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찬양대와 각 오케스트라, 그리고 대학부 중창단이 영으로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 ⑤ 순천소년원을 포함하여 각 교도소와 분투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정전도회와 함께 하옵소서.
- ⑥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 원로목사

■ 김장인

■ 위임목사

■ 김광남

■ 부목사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 이흥선

1998. 1. 25 제98. 4호

출애굽기 7장 - 출애굽기 28장

천헌 성경통신 강좌

(제) 교구 지역 구역() 이름

1. 다음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7 ~ 12장)

1. 여호와께서 하수를 지신 후 칠일이 지나니라 ()
2. 내가 네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이 이 표징 있으리라 ()
3.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너성과 우박이 그리고 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4. 스스로 삼가 다시 네 얼굴을 보지 말라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
5. 애굽 전국에 전무무후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
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밭도 꺾지 말지며 ()

2. 다음 성경을 완성하십시오. (출애굽기 13 ~ 17장)

1.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
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죽되 행하고 물은 그들의 피로에 ()
3. 모든 길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
4.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
5.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

3. () 안에 맞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시오. (출애굽기 18 ~ 22장)

- 1)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지 아니하러 ()
- 2)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
- 3) 너는 출애굽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
- 4)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돈으로 ()
- 5) 들에서 짐승에게 쫓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지니라 ()

4. () 안에 맞지 않는 말을 넣으시오. (출애굽기 23 ~ 28장)

- 1) 내가 ()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말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 내리라
- 2)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내가 ()를 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 3) 중개라 위에 있는 ()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 4) 너는 자정소에 있는 중개라 위에 ()를 두고
- 5) 순결한 기쁨을 통물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 통물을 끼되
- 6)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이라 () 죽지 아니하리니